

# 대학 정원미달 현실화에 폐교 위기감 반영...과제 첩첩

광주시 지역대학 살리기 나선 배경·전망  
‘교행 분리 원칙’ 넘어서는 첫 시도  
수도권 학생 유인 경쟁력 급선무  
인공지능·문화 콘텐츠 학과 개설  
근본 원인 저출산 극복에도 집중

이용섭 광주시장이 교육을 지방행정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지역대학이 처한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층 외지이탈 등으로 지역 내 주요 대학마저 정원 미달이 현실화하고, 향후 2~3년 내에 일부 대학은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권의 초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점도 광주지역 대학의 정원 미달과 무관하지 않다. 광주지역 정원의 상당수가 전남권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이 이날 제시한 지역대학 살리기 정책은 교육과 일반행정을 분리하는 ‘교행(敎行) 분리 원칙’을 넘어서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로드맵과 행정, 교육기관간 원만한 협업 등이 성공의 열쇠로 분석되고 있다.

이 시장이 2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힌 대학발전 협력단 신설계획에도 이 같은 고민이 녹아있다. 이 시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나 “지방행정 영역에 교육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만큼 지역 대학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라면서 “이르면 다음 주 중 교육청 및 대학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파견 받아 협력단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역청년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미달사태까지 속출하고 있고, 폐교를 걱정하는 지역 대학도 상당수”라면서 “광주·전남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것도 대학의 신입생 확보를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신입생 최종 등록률은 전남대 96.67%, 조선대 97.1%, 호남대 90.0%, 광주대 90.4%, 동신대 92.3%로 정원 미달이 현실화됐다. 이 시장은 “신입생 미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자체는 물론 대학과 지역 기업, 시민들이 모두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지역 대학들이 수도권에 있는 학생까지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미국 스탠포드대학이 실리콘밸리를 견인했고, 영국 등지에서 지역대학이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지역 대학과 함께 미래산업인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 관련 학과 개설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다만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 위 학교에서부터 교육과 행정을 분리하는 ‘교행 분리 원칙’이 유지되는 현실에서, 일반 행정가 주도로 교수·교사 등 교육전문가와 교육행정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는 게 교육 전문가 등의 우려다. 또 지역 대학의 위기를 지역 대학 수뇌부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느냐도 문제다. 실제 일부 대학은 총장과 교수들간 내부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며, 방만한 경영을 하는 대학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도 “대학 스스로가 변화의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일부이긴 하지만 대학 고위층을 중심으로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각종 이권에만 관심을 갖는 대학도 있다”면서 “이런 협력단 구성을 통해 대학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불필요한 군살을 빼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의 위기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지역 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광주 인구는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초과하는 ‘데드 크로스’가 이미 현실화했으며,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도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시도 이 같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선 7기 들어서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면목 없는 일이지만 부동산 부패 고리 끊어낼 기회”

“AZ 백신 안전성 의심 말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는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쉽지 않은 기회”라며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랫동안 누적된 부를 축적하는 방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것만 만큼 쉽지 않을 일이다.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추세를 이어가도록 후속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에 대해 “수출과 투자가 늘어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면서도 “내수와 고용의 부진이 계속되는 것이 걱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이 경제회복의 최우선 목표”라며 “각 부처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일자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달라. 산업별·업종별 불균형 해소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됐다. 대다수 유럽 국가도 접종을 재개했고, 질병관리청도 65세 이

상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했다”며 “저와 제 아내는 오는 6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다”고 밝혔다.

올해만 68세인 문 대통령과 만 66세인 김정숙 여사는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첫날인 오는 23일 백신 접종을 한다. G7 정상회의에 함께 하는 필수 수행원들도 같은 날 접종한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말고 순서대로 접종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백신 접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며 집단면역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대권 적합도, 윤석열 39.1%·이재명 21.7%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이낙연 지지율 11.9% 기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4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에게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윤 전 총장이 39.1%로 1위를 차지했다. KSOI의 지난 15일자 조사(37.2%)보다 1.9%포인트 상승한 지지율이다.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계된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중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10% 중반에 머물던 윤 전 총장 지지율은 총장직 사퇴 이후 30%대로 수직상승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1.9%로 뒤를 이었다.

여권 후보군인 이 지사와 이 위원장의 지지율은 각각 2.5%포인트, 1.4%포인트 하락했다.

그밖에 무소속 홍준표 의원 5.9%,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7%, 유승민 전 의원 2.7%, 정세균 국무총리 1.9%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KSOI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34.1% ‘역대 최저’...민주당도 최저치

리얼미터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 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4.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4.8%포인트 상승한 62.2%로 조사됐다. 긍정평가는 현 정부 들어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다. 긍·부정평가간 격차는 28.1%포인트로 최대치를 나타냈다. 모름·무응답은 3.7%였다. 문 대통령 지

지율의 이전 최저치는 지난 1월 1주차의 35.5%, 부정평가는 이전 최고치는 같은 시기 60.9%였다.

지지율 하락폭은 대구·경북(9.3%p ↓), 광주·전라(5.8%p ↓), 30대(5.8%p ↓), 50대(5.7%p ↓)에서 컸다. 민주당 지지층(2.6%p ↓), 열린민주당 지지층(2.3%p ↓)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1%포인트 상승한 35.5%, 더불어민주당이 2.0%포인트 하락한 28.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4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1.4%포인트 하락한 26.2%, 국민의힘 지지율은 2.5%포인트 상승한 38.9%로 조사됐다.

12.7%포인트 차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은 2.8%포인트 하락한 23.5%, 국민의힘은 2.8%포인트 오른 42.0%로, 격차가 18.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지난 3주간 지지율을 분석해보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진보층의 이탈,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중도층의 견인으로 나타난다”며 “LH 이슈가 어느정도 해소되고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 회복 탄력성을 보일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GIEL**  
Gwangju Intelligent Electronics

**광주가 만드는 지능형 가전 브랜드**



### GIEL 사용기업 혜택

☑ 국외 인증취득 지원

수출희망국가 품질/규격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지원

☑ 클라우드 펀드 참여 지원

클라우드 펀딩 성공전략 및 교육(멘토링), 펀딩 개설비 지원을 통한 자금조달과 판로개척

☑ 국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기획전 참여 지원

대형 온라인쇼핑몰과 연계하여 참여기업 제품 판매기획전 개최 및 입점기회 제공

☑ 홍보영상 제작 지원

국내외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GIEL(지엘)**

Gwangju Intelligent Electronics



지역 제품이 모이면  
하나의 브랜드가 됩니다  
〈광주공동브랜드〉

문의처 :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부 (Tel. 062-602-7222)



GIEL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https://gjcb.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